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이 진 수(02-2100-1660)	담 당 자	나 혜 영 사무관 (02-2100-1661) 김 수 아 사무관 (02-2100-1662)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신 장 수(02-2100-1670)		홍 재 선 사무관 (02-2100-167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이 지 형 사무관 (02-2100-2836) 김 경 문 사무관 (02-2100-2824)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김 미 정 사무관 (02-2100-2851) 강 승 재 사무관 (02-2100-2853)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이 종 림 사무관 (02-2100-295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홍 성 기(02-2100-2610)		김 윤 희 사무관 (02-2100-2611) 최 범 석 사무관 (02-2100-2612)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 최 치 연(02-2100-2930)		오 형 록 사무관 (02-2100-2931)

제 목 :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 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11.26.(목) 9:00 ~ 10: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캠프, 신복위
 (금융협회)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신협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의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의 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를 12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일~'21.1.13일)
-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이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일)」 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先수요가 있었으나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소은행권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조원) : (8월) 3.1 (9월) 1.9 (10월) 2.7 (11월) 3.0

-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지난 4월 마련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同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월→~'21.6월)

②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월~)

③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월→~'21.6월)]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항공업의 정상화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 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①다수의 일자리*를 지키며 ②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③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兩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①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②녹색성장 재조명, ③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①디지털·②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③금융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8,08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39영업일간 21,400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②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 11.20일까지 235.9만건, 25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3.2만건)-소매업(37.9만건)-도매업(28.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3.7조원)-도매업(32.7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3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3.7만건, 107.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72.2만건, 143.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7.9만건/128.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4.9만건/12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11.20.)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6.4조	14.7조
	10.0조	2.8조 (28,081억원)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21.2조	22.6조
	7.9조	6.7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코로나 피해 P-CBO(4.1일~) 	5.0조	8.6조
	6.1조	2.2조
	20.0조	2.0조 (20,191억원)
	11.7조	3.0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9,925건 (753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6,380건 (2,439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43.2만건	37.9만건	28.5만건	15.3만건	12만건
14.1조원	17.3조원	32.7조원	43.7조원	8.9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8.1만건	6.8만건	2.9만건	2.7만건	78.8만건
4.5조원	18.1조원	5.6조원	14.1조원	91.9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6.7만	41.2조	78.6만	46.9조	578건	577억	125.3만	88.1조
	만기연장	7만	34.6조	26.3만	74.5조	3.1만	1.1조	36.3만	110.2조
보증	신규	38.4만	19.7조	-	-	-	-	38.4만	19.7조
	만기연장	35.9만	33조	-	-	-	-	35.9만	33조
합 계 ²⁾		127.9만	128.4조	104.9만	121.3조	3.2만	1.1조	235.9만	250.9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